

전북 올림픽 유치 ‘암흑’...졸속 준비 논란 확산

사전 타당성 조사 3개월 연장 논란
중요 시설 새만금 신공항 위기 겹쳐
조국당 전북도당 “현실 직시해야”
“도 준비도 해명도 부실” 성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돌연 연장했다는 소식은, 야심 차게 출발했던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3월 압도적인 표차로 국내 후보지에 선정되며 ‘균형 발전’과 ‘지역 연대’라는 새로운 올림픽 패러다임을 내세워 수도권에 독점을 쫓는 점에서 도민의 꿈을 부풀게 했던 전북도의 행보가 7개월 만에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힌 것이다”며 “게다가 올림픽 성공 개최의 필수 사회 기반 시설로 여겨졌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마저 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이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9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사전 타당성 조사가 12월 말로 3달이나 미뤄진 것은, 올림픽 유치 계획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함이라는 전북도의 해명은 결국 애초부터 완성도 높은 계획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조국당은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기본계획을 취소판결로 현재 소송 중인 전북도의 읍소 해명이 너무도 허술하다는 점이다”며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축소·왜곡하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림픽 유치의 중요한 기반 시설인 신공항 건설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적인 항공 접근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도당은 “이는 잼버리 사태와 신공항 건설 논란을 겪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외 사례와도

연동되며 큰 경고음으로 다가온다”고 전제한 뒤 “2004 아테네 올림픽 이후 그 리스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국가 재정 적자 폭이 크게 늘어 경제 위기를 겪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역시 남미 최초의 올림픽 개최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었다”고 우려

했다. 조국당은 “2020 도쿄 올림픽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큰 비용을 감수했고, 약 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림픽 이후에도 현재까지 경기장 운영에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2036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당은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가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일이 아니다”며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의회와 정치권, 도민들과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진안 고원화목원
‘가을꽃 힐링정원’

전북 산림환경연구원이 운영 중인 고원화목원은 단풍철을 맞아 국화, 페튜니아 등 6종 5,200본과 나무 3종 156본으로 ‘가을꽃 힐링정원’을 조성했다. 방문객은 11월 중순까지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장연국 도의원 ‘보행안전도우미’ 제도화 추진

임시회서 운영 조례 대표발의
공사장 보행권 보장 기반 마련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



장연국 도의원

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

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안전시설을 점검·보수 요청하며, 교통약자 통행을 동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안내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어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보행안전은 도민의 기본권이자 가장 일상적인 안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사 현장에서도 도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명연 도의원 “민생지원금 형평·지속가능성 따져야”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우려
“재원마련근거·검토절차명확히”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중이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족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



이명연 도의원

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사전 검토 절차 강화다. “지자체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재정 영향과 경제적 효과,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도의회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셋째,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다. “지원대상, 규모, 시기 등을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급증...대책 마련해야”

박희승 “건강악화 중도포기 높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 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0,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이었다.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2배가 급증했으며, 사망도 124건 발생했다.

중도 포기율도 높다. 공익활동형은 지난해 중도 포기율이 12.1%에 달했다. 중도 포기한 9만 2,340명 중 48,019명(62.0%)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으며, 사망도 2,527명(2.7%)에 달했다. 역량활동형은 9.6%,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및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44

☀

☁

☔

그리고 반딧불이

여기가 무주대!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

道, 2026년 농생명산업 예비지구 정읍·김제 최종 선정

정읍 약용치유융복합산업지구
김제 콩애플 논공산업 거점지구
지역 특화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전북도는 24일 개최된 농생명산업지구 심의위원회에서 ▲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 김제 ‘콩애플’ 논공 산업 거점지구, 총 2곳을 2026년 농생명 산업 예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을 각 지구별 계획에 반영한 후, 2차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 타당성, 실행 가능성,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했다. 최종 선정 기준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2개 지구가 예비지구로 확정됐다.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는 농

업생산연계형 지구로, 지역 특화 약용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융복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역 발전 연계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 ‘콩애플’ 논공산업 거점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 지구로 기존 1차 산업인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2차·3차 산업(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으로의 확장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사업 추진 역량을 크게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는 신규 지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식품, 경제, 유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입지 여건, 산업 연계성, 경제성, 전략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비지구 선정에 앞서 실행 모델을 내실 있게 마련했다.



전북도는 24일 개최된 농생명산업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총 2곳을 2026년 농생명산업 예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이번에 선정된 2개 지구는 세부실행 계획 보완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구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정철 기자>

전북도, 전국 최초 온비드 압류물품 전자공매 ‘성과’

온비드 활용해 288건 전량 낙찰
채납액 2억7천만원 징수 실적
공정·투명 지방세 행정 ‘새 모델’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이용기관 페이지를 활용한 시군 합동 압류물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한 결과, 총 288건이 전량 낙찰되어 2억7천7백만 원의 채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세 고액채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288점을 공개 매각했다.

낙찰대금은 1억2천7백만 원에 달하며, 공매 이후 채납자 9명이 자진 납부한 1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7천7백만 원이 채납액으로 총당됐다.

이번 전자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온비드 플랫폼을 공식 활용한 전국 최초의 합동 공매 사례로,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매 현장에는 약 2천 명이 방문해 실물을 직접 확인했으며, 응찰 건수도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찰 참가자는 보증금(입찰금의 10%)을 예치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입찰이나 낙찰 포기 등으로 인한 유찰 사례를 최소화했다. 실제로 낙찰 포기로 귀속된 보증금 110만 원 역시 채납세금에 충당됐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감정이 500만 원의 IWC 시계가 735만 원에, 1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이 최고가로 각각 낙찰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도는 이번 공매 과정에서 온비드 담당기관과 협업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지자체도 동일한 절차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수수료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매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활용 시군 합동 압류물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한 결과 2억7천7백만 원의 채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가를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도의 공매는 전국 최초로 온비드 이용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합법적 전자공매 사례로, 지방세 행정의 새 기준을 세웠

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정철 기자>

전북, 벼 수발아 농업재해 인정…농가 지원 길 열려

익산·김제·부안 3,360ha 피해
도, 농식품부 재해인정 건의
31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벼 수발아 피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아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 말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잦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논공과 벼 수발

아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물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했다.

벼 수발아는 익산·김제·부안 등지에서 3,360ha(잠정) 규모로 발생했으며, 건의 결과 이날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피해농가는 시군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수발아 피해 벼 수매 물량을 확인해 농가별 복구비를 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가을배추 및 논공 피해도 지난

23일 농업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현장조사에서 가을배추는 익산·정읍·고창 등에서 322ha(잠정) 규모로 뿌리내림 부진과 무름병이 발생했고, 논공은 익산·정읍·김제·부안 등 5,420ha(잠정)에 달하는 잎과 줄기 마름, 뿌리썩음 증상을 확인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피해 조사를 토대로 농식품부에 지원을 적극 요청해 가을배추와 논공은 전북·경북·충북 3개 시도에 한해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피해 농가들이 복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10월 31일까지 벼 수발아

등의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접수 기간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피해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신속한 대응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회복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발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
농어촌 맞춤 의료체계 구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3,626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명으로 10년간 21%가 감소했다.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년 2,239명, 2024년 1,209명)가 감소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2024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총원율이 93.5%에 이르지만,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총원율이 54.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2024년 기준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총원



윤준병 의원

율이 93.5%에 이르지만,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총원율이 54.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

료취약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현행 법은 보건지소 간의 통합,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또는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를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도의회, ‘청렴전북’ 캠페인 공동 개최

부패행위 과녁 사격 퍼포먼스
“청렴 의식 확산 도민 신뢰 제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참석자들은 ‘갑질’, ‘특혜’ 등 부패행



위 문구가 적힌 과녁을 사격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해 부패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승우 의장은 “청렴 정조준 공동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을 핵심가치로 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일상속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01
적당한
냉방/난방 온도
유지하기

02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 하기

03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도-(사)세계한인경제무역協, 올림픽 유치 ‘맞손’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연대…국제적 홍보 지지 확산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식에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 28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 홍보가 가능한 단계 진입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연대 최초로 도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의 국제 공감대 형성과 유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식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서는 박종범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 인천 유정복 시장, KOTRA 강경성 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등 1500여 명이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해외 주요 인사와 단체를 대상

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과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 공동사업 추진, 경제교류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198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단체로, 모국의 무역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 중인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이 제22대 회장으로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년 차세대 육성, 경제교류 확대 등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세계 곳곳의 한인 경제인들과 전주 하

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내외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한인 경제행사다.

대회 기간 동안 기업 전시, 수출 상담회, 경제포럼, 문화교류 행사 등이 진행되며, 전북 도내 ㈜대성메디칼(익산), 라인플라즈 코스메틱(고창), ㈜셀코어(완주), ㈜유제이(군산), ㈜코빅스(남원) 등 8개 기업이 참가해 수출 상담과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출생아 수, 전년대비 2.4% 증가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발표

2024년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총 6780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년 호남·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4,195명으로 전년대비 1.5%(351명) 증가했으며, 지역별 전남(8,225명), 전북(6,780명), 광주(6,034명), 제주(3,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전남(5.1%), 전북(2.4%) 증가, 광주(-2.2%), 제주(-2.0%)는 감소한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조(粗)출생률에서는 제주(4.7명), 전남(4.6명), 광주(4.3명), 전북(3.9명) 순이며, 전년대비 전남(0.3명), 전북(0.1명) 증가하고 광주, 제주(-0.1명)는 감소세를 보였다. ’24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전북(33.1세), 제주(33.4세), 광주(33.3세), 전남(33.0세) 등이다.

’24년 호남·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전남(20,108명), 전북(17,110명), 광주(9,136명), 제주(4,902명) 순이고 전년대비 제주(4.8%), 광주(3.0%), 전남(1.6%)은 증가하고, 전북(-0.5%)은 감소.

’24년 호남·제주지역 혼인건수는 전남(7,049건), 전북(6,388건), 광주(5,688건), 제주(2,744건)이며, 전년대비 전북(16.5%), 전남(14.5%), 광주(10.0%), 제주(5.0%) 순으로 모두 증가했다.

’24년 호남·제주지역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제주(13.2%),

전북(11.5%), 전남(10.4%), 광주(7.8%) 순이며, 광주는 전국(9.3%)보다 낮았고 전년대비 전남(-1.9%p), 광주(-1.2%p), 전북(-0.8%p), 제주(-0.2%p)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24년 호남·제주지역 이혼건수는 전남(3,473건), 전북(3,453건), 광주(2,258건), 제주(1,648건)이며, 전년대비 제주(10.4%), 전북(1.0%)는 증가하고, 광주(-5.9%), 전남(-1.3%)은 감소로 나타났다.

/정혜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현장 홍보

전국 노숙인 시설찾아안내 12월 5일까지 적극추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기초연금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제도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 우편 등 일반적인 행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에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잘 전달될 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기초연금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온라인서 확인한다

84종 지침 웹페이지에 공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출농산물 84종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웹페이지를 구축, 공개했다.

기존에는 책자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수출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늘어 웹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디지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은 국가별·작물별 맞춤 검색 기능이 적용됐다.

사용자가 검색 화면에서 수출대상 국가와 수출농산물을 선택한 뒤 검색을 누르면 수출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용도, 적용 병해충, 품목명 등 관련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검색 창에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또 모바일 최적화 화면을 적용해 휴대전화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수출대상국가의

잔류허용기준이 낮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농가가 농약을 사용할 때 안전사용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수출 부적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 관심콘텐츠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또는 정보무늬(큐알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수출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 농가와 업체,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최달순 과장은 “디지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해 손쉽게 수출대상 작물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TP, 전주·남원·임실·순창 기업 현안 청취

선도기업 대표자협의회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남원, 임실, 순창, 전주 등 전북 지역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5년 제10회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제10회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협의회’ 개최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의회는 10월 27일 전주 소재 IT기업 (주)나우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선도기업 대표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주)나우리의 기업 탐방을 통해 IT기업의 생태계와 기술 현황을 둘러보며 지역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기술융합을 통한 성장 전략, 지방 소멸시대의 인재유출 대응, 그리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도내 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올해 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총 10회에 걸친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와 성장 기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오늘 청취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환 기업지원단장은 “도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 주셔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에서 나온 소중한 제언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회-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열려

대상 ‘밤꿀 디저트’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사)한국양봉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25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이들 10팀이 참가해 ‘양봉산물을 활용한 한 입 거리 요리’라는 주제로 솜씨를 겨뤘다.

강래오 요리사(세프), 농심 스낵 개발팀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출품작을 직접 시식하며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특별상 3팀을 가렸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는 양봉산물 밤꿀을 이용해 ‘가을 한 입 밤꿀 몽블랑 수플레’를 만든 ‘김

결이’ 참가자가 선정됐다.

목직한 풍미와 단맛을 내는 밤꿀과 잼을 이용해 만든 크림을 수플레 위에 올린 후식(디저트)이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에 맞게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룬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강래오 요리사가 국산 벌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특별행사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올해로 5회를 맞은 양봉요리 경연대회는 조리법 발굴에 그치지 않고 요리를 상품화해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았다”라며, “지자체 홍보 협조, 강래오 요리사와의 협업, 실용화를 위한 식품기업과 청년 양봉인들의 참여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산 양봉산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관원,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

규격 포장재 출하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5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357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물량)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정된 포대벼 검사물량은 총 83,254톤으로 일반벼 68,842톤, 가루쌀벼 12,994톤, 친환경벼 1418톤이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올해 개시무늬병 확산과 수확기 강우에 따른 도복 및 수발아 피해로 벼 품위저하가 우려되지만, 소속 검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친절한 매입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

발굴 프로젝트1:1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1층 대강당에서 14개 시군 및 관계기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민간자금 등과 자펀드를 결성해,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단법인 지역활

성화투자개발원이 펀드의 기본개념 및 금융구조 등을 교육했다.

또한 모펀드 운영사인 한국성장금융이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이 발굴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금융 전문가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금융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유망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유치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민간 투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이 미쳤다” 문정복 의원 발언 사과 촉구

전북교원단체,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실 왜곡 강력 반발

전북교원단체들이 최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두고 국감장에서 고성을 지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무상교육비 11만 원 지원을 두고 ‘7만 원을 깎았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전북교육청이 미쳤다’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미 5개 시·도교육청(전북·인천·충남·경남·울산)이 지자체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걸 알면서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2022년 ‘전북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만 3~5세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

가 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으며,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체제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비 11만 원은 전국 단위의 보편지원 정책”이라며 “이미 무상 교육을 시행 중인 지역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재정 건전성에도 맞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조정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혜택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예산을 재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정부 지원에는 공립유치원도 포함됐지만, 이미 전액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병설유치원이 원아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폐원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공립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문 의원의 ‘전북교육청이 미쳤다’는 발언은 교육정책에



전북교원단체들이 최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고성을 지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본>

대한 무지와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추가 지원에 따라 교육

청의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을 표준유아학비에 맞게 조정할 것을 두고 폭언한 것은 취지를 왜곡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행사성 경비 등 30% 이상 감축

내년도 본예산편성 현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점검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의 일환이다.

현재 전북교육청 예산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세수 결손 등으로 보통교부금은 약 9,012억 원 감액됐고, 특히 2026년도 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58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입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 여건이 크게 어려워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전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행사성 경비·연수비·소모성 경비 등 30% 이상 감액 및 자산취득 최소화 등 사업규모 축소, 계속비 및 시설사업 재검토 등 전면적 지출 구조 개선 통해 본예산 편성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본예산을 ‘미래 교육 발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두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합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균형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장기 재정구조 개선과 한정된 재원이지만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자녀 흡연 허락했다며 항의한 학부모 결국 공개 사과

“인성인권부장 상처 치유에 도움 됐으면”

전북 지역의 한 학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의 흡연 지도를 담당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한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사과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소년기 흡연에 대해 반대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 엄마가 학생이 중학교 때 처음 흡연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됐고, 몰래 흡연을 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호자 울타리 안에서 금연 지도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성인권부장과 의 통화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 몰랐다.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했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A씨는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 행동은 분명히 잘못

했다”며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 제 공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북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촬영해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학교 밖에서 피운 건데 왜 문제 삼냐”, “내가

흡연 허락했다”, “학교를 쫓대발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또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교사는 시청 여성아동과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일삼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A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학생 취업목표 설정

직업계고 취업캠프 운영 학생 80여 명 참여

전북교육청은 27일 전주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학생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나를 찾는 하루, 직업계고 취업로드맵’ 취업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및

취업희망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목표 설정과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취업특강과 직무탐색 활동을 통해 취업마인드 함양 및 진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선취업 후진학 및 취업마인드 특강 △직장예절 및 비즈니스 매너 교육 △희망 진로별 맞춤형 상담 △성공 취업 부루마블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이날 전문 강사의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전략을 배우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교육 이후 학생들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희망 진로 찾기 및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현실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황실문화재단 ‘대한황실공예대전 수상작’ 선정

‘안고지기 삼층장’ 대상

제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황실문화재단 신품상(대상)이 선정됐다.

황실문화재단(총재 이석)은 2025년 제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황실문화재단 신품상(대상)으로 소중한 작가 ‘안고지기 삼층장’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을 통해 ‘황실회화, 섬유공예, 금속공예’ 분야 작품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황실도자, 황실목질공예, 황실한지공예 분야로 확대됐다.

이를 토대로 대한황실공예대전 운영위원회(박종렬 위원장)는 지난 1월 정기총회를 갖고, 2차 자문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 8차 실무위원회를 거치며 공예대전을 준비해 왔다.

또 한국미술협회 및 18개 지회 협조를 받으며 공예대전 심사 공정성을 높였다. 작품 선정은 지난 10월 22일 기린미술

관에서 황치석(서울여대 교수)심사위원장, 방화선 부위원장, 6명의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작품 적합성, 예술성, 기교성 및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장작으로는 신품상(대상)에 소중한 작가 ‘안고지기 삼층장’,최우수상 묘품상 정정혜 작가 ‘화조도’,우수상 능품상에 김영준 작가 ‘수복의 빛’ 이층나전칠기장이 선정됐다.

일품상 수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상 조애리 작가 ‘봉황도’, 교육감상 김선희 작가 ‘꽃도련남’, 전주시장상 이인화 작가 ‘신경유철릭’을 각각 선정했다.

이외 장려상에는 11명, 특선작으로 14명이 수상 이쁨에 올랐다.

수상작들은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린미술관 전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축제가 많은 가을철 ! 지역축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축제 방문 시 주의사항

질서 유지

비상 대피로 확인

보행자·차량 혼용도로 서행

탈진 방지

축제 진행 중 주의사항

제한구역은 출입하지 않기

지정 관람석 준수하기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안전선 준수하기

폭죽 사용 자제하기



익산 인화동 송리문화마을 일대서 ‘보물찾기축제’ 개최

익산시가 인화동을 배경으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특별한 축제를 선보인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화동 송리문화마을 일대에서 ‘2025 제3회 보물찾기축제-금괴를 찾아라’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송리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금괴 이야기’에서 착안해,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에 접단 기술을 더한 체험형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AR(증강현실) 보물찾기’와 ‘송리 탈환작전 RPG(역할수행 게임)’ 체험이다.

‘AR 보물찾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거리 위에 숨겨진 가상의 금괴와 보석을 찾는 체험이다. ‘송리 탈환작전 RPG’는 참가자가 1920년 송리독립군이 돼 일본군 급고속 금괴를 탈환하는 몰입형 게임이다.

현장에서는 보물찾기와 송리 탈환작전 외에도 보석공예 체험 △인화동 생활문화 전시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작은 그림 아트페어’ △밴드·오케스트라·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아울러 플라멩코와 먹거리존이 함께 운영돼 방문객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30일 연지아트홀서 ‘로봇레이저버블쇼’ 무료 공연

정읍시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연지아트홀에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로봇레이저매직버블쇼’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복합 공연으로, 로봇 퍼포먼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레이저 조명의 화려함·미술의 신비로움·버블쇼의 환상적인 시각효과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초목회 단체전·작품 30여점 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장미갤러리 2층에서 초목회 단체전 ‘제4회 초목회전’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전통 수목화와 문인화의 미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초목회 회원들의 단체 전시회로 한국화, 문인화, 채색화 등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정기적인 작품 활동과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 초목회는 전통 회화의 깊이를 탐구하며, 시대적 감수성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모임이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자연을 향한 존중과 관찰,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바탕으로 수목의 먹빛에 삶의 이야기와 사색을 담아냈다.

특히 ‘막’이라는 단색의 재료가 보여주는 번짐과 농담(濃淡)으로 표현된 무한한 여운과 울림이 관람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초목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한국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현대적 확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그림을 통한 사색과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개사동 패총’ 학술조사연구 착수

신석기시대~삼국시대 생활상·자연환경 확인 가치 제고 활동 등 추진

군산시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27일부터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질 무더기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석기, 골각기, 동물 뼈 등이 조개껍질 사이에서 섞이지 않고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자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이다.

시는 이번에 조사할 ‘군산 개사동 패총’은 50cm 이상의 두께로 커져이 쌓여

있는 조개껍질과 청동기~삼국시대 유물이 함께 발견돼 당시 생활상과 고고학적 편년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에는 군산 선제리유적, 군산 미룡동 고분군 등 다수의 중요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앞으로 주변 유적과 연계한 조사성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군산지역은 서해에서 금강·만경강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군산 개사동 패총, 군산 미룡동 고분군,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등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650여 개소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된 중요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유적조사 외에도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추진 △군산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협력 △기타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히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군산 다움(군산의 가치와 고유성)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25만 명 발길 사로잡다

13일간 일정 성료

지역 먹거리 판매 등 호평

대한민국 구절초의 성지 정읍에서 열린 제18회 구절초 꽃축제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구절초 개화기인 10월 초부터 축제 기간까지 총 2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맛있는 정원’ 등 4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맛있는 정원’·‘작가의 정원’·‘치유의 정원’·‘놀이의 정원’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유명 방송인들이 관광객과 어우러진 ‘명사 초청 콘서트’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려 소풍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의 먹거리·제품을 선보인 식당·특산물먹거리판매장 등 판매 행사에서도 우수한 품질·착한 가격이 호평받았다.

축제 기간 현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은 15만㎡의 숲속 구절초 경관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들꽃정원의 화



사한 꽃백일홍·코스모스 등의 가을꽃 향연, 2만㎡의 넓은 잔디정원에서의 휴식·놀이를 즐겼고, 짬과이어도 인기리에 운영됐다.

시는 축제 후반인 10월 23일부터는 입장료를 7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했다.

이는 늦게 방문한 관광객들의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는 등 관광객과 소통·공감하는 축제 행정으로 호평이 이어졌다.

시는 축제 후에도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정원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강연전 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3일간의 축제 여정이 안전하게 마무리돼서 축제를 준비해 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제 기간 다녀간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으로 내년에도 다시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명품인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에서 구절초 정원의 인기·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구절초 꽃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참여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혜택···소비 촉진 도모

군산시가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가통합 소비 활성화 프로젝트로 시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 기간 내에 군산시는 모바일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할인율 13%에 더해 추

가로 5% 캐시백으로 적립해주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총 18%의 혜택을叠加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총 175억 2천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비 8억 7천 6백만 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특히 군산시는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3만 5천 원의 추가 캐시백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해 시민들의 소비 촉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추가 캐시백 혜택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소비



를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5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30일~11월5일까지 접수 75명·학기당 1백만원 지급

익산시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다익산 장학생’을 선발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율)은 오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2025년 하반기 다다익산 장학생’ 신청

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총 75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현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가 꿈을 이어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진학 컨설팅 △익산사랑·다다익산·도전인제 장학생 선발 △수도권 행복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며 교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스마트 관제로 시민 안전망 강화

스마트 안전도시 도약

익산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인공 지능 기반의 딥러닝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CC(폐쇄회로)TV 영상 속 인물과 차량 등 객체를 자동 식별하고, 배회·침입·폭력·넘어짐 등 이상 행동을 실시간 감지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한다.

이를 통해 사건·사고 사전 예방

과 신속한 대응에 효과적이다.

시는 현재 신동 대학로, 여성안심구역 등을 중심으로 약 500대의 CC(폐쇄회로)TV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우범지역에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제 효율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더욱 견고히 지켜나갈다”며 “앞으로도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127명 모집

조사원 등 11월 12일까지

오는 11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앞두고 정읍시가 현장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시는 가구 방문 조사를 담당할 조사원 107명과 관리요원 17명 등 총 127명의 조사요원을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인원 중 조사원은 가구 방문 조사를 담당하며,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 등 관리요원은 현장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활용이 원활하거나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

모 통계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 채용한다.

다자녀가구·장애인·저소득층 역시 우대 대상이다.

신청은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누리집(affcensus.go.kr)을 통과거나, 정읍시 통계조사종합상황실에 방문해 할 수 있다. 합격자는 11월 14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된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이용해 가구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요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통계조사종합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읍면·동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실무교육

이해도·실적 향상 등 역량 강화

군산시는 27일 콘텐츠팩토리 3층 세미나실에서 읍·면·동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해도 향상 △합동평가 실적 향상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관처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교육문화팀 소속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 방향과 운영 체계를 현장에서 공유하며 실무적인 경험과 지식을 제공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읍·면·동 담당자

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문화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만 원을 지원해, 공연·전시·도서·체육·관광 등 다양한 문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다.

군산시는 문화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본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제36회 정읍사문화제, 호응 속 폐막

시민관광객소통축제 자리매김

정읍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제36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송고한 사랑을 기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 제례부터 인기 가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관광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정읍사문화제는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축제 첫날인 25일에는 채수익례·정읍사 여인제례·기념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무대에는 국민가수 설운도·김다현 등이 출연해 큰 박수를 받으며, 시민·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26일 열린 정읍사가요제 본선 무대

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명의 참가자가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다. 그중 김한솔 씨가 대상을 차지하며 영예의 주인공이 됐고, 상금 300만원·전북가수협회 인증서를 수상했다. 이날 초대가수 송가인·김미주가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무대로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부스·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최한나 강사의 역사강연·정읍 역사 도전 골든벨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문화제가 시민·관광객 모두가 즐기며 소통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20% 할인 지역상권 활력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참여 14억 발행 결제 시 20% 캐시백 내수 촉진·소상공인에 실질 도움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동참한다. 이번 행사 참여에 맞춰 군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정부의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축제로 10개 부처와 3만개 유통사가 참여하며 국립박물관 무료 개방을 비롯해 교통·숙박·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축제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행사기간 중 14억원을 발행하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월 150만원 결제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20% 캐시백을 제공한다. 14억원의 발행액이 전액 소진되면 당초 할인율이었던 15% 캐시백을 적용한다.

단,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를 중단해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어플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 상품권은 은행 방문 후 구입이 가능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고산 북부 마을버스 내년 도입 ‘공영제 완성’

군 전역 공영제 확대 마지막 단계 500원 요금·맞춤 시간표 등 제공

완주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독자적·효율적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026년 상반기부터 완주군 직영 ‘완주형 마을버스’를 고산북부 지역에 본격 투입해 기존 시내버스를 대체·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전주시와의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이서 △2022년 소양·구

이·상관·동상 △2024년 삼례 △2025년 7월 봉동·용진 지역에 총 30대의 마을버스를 도입했다. 이번 고산북부 지역 도입은 전 지역 공영제 확대의 마지막 단계다.

군은 차량 구입, 운전원 채용, 노선 설계 등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산북부 지역에 버스 공영제가 시행되면 현재 1,700원인 요금을 50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군 전역에서 완전 공영제 기반의 시내버스 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전철 서비스 강화 △이용자 맞춤형 시간표 운영 △정시성 확보 △교통비 절감 등 군민 체감형 긍정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 개선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산북부 지역 마을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주형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식을 열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

복지·돌봄 유기적 연계 협력 시민 체감 통합돌봄 강화

남원시는 27일 오후 1시 3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자문기구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과 평가, 통합지원 사책 추진, 관련 기관 연계·협력 등 분야에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 △기념사진 촬영 △위원장 인사말 △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시는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지역의 복지자원과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남원시는 ‘2025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돼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남원시의 장기요양등급자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대상자 3,304명 대상 전수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기획·시범 운영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취약자 안전 강화

마방길 등 6개소 시설물 설치 신규 대상지 지정·고시 변경 추진

남원시는 마방길 등 6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신규 대상지 지정을 위한 지정·고시 변경과 국비 공모사업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행자와 차량의 구분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 어려운 좁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 우선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여성안심귀갓길’ 완료…도로표지병 개선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창군지회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일한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창군지회(회장 정명자)는 최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여성안심귀갓길 도로표지병 정비사업을 지난 2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표지병은 야간 조명이 없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등으로, 어두운 골목이나 외진 길목의 주민 안전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 시설물이다.

이번 정비사업에서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창군지회는 순창군과 협력해 현장 실태조사 및 야간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점검했다.

이후 여성들의 체감 안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창읍 순창로 226-2에서 순창10길 22까지의 구간을 우선 선정해 도로표지병을 교체했다.

정명자 회장은 “여성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평등 안전 환경 조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최광호 의원 “완주 드라이브인 페스타 안전관리 부실”

최 의원 “5억 세금 투입 행사 기본 안전조치도 없어” 질타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 둔산공원 일원에서 열린 ‘완주군 드라이브인 페스타’ 행사의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둔산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완주군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것으로 대형업체의 부실 시공과 완주군청·완주문화재단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드라이브인 페스타’로 3일간 진행

된 행사는 곳곳에서 배전반이 주요 통로 인근에 설치돼 군민이 감전 위험에 노출됐고, 발전차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사장 바닥은 비로 젖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었다. 발전차 주변도 안전 펜스 없이 나무가지와 경도 테이프만 설치돼 있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광호 의원은 “행사 대형업체가 기본적인 안전 기준도 무시했고 이를 방치한 완주군청과 완주문화재단 역시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K-POP·리듬 댄스 접목 유아 건강 댄스 교실 운영

순창군이 유아기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나는 유아 건강 댄스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해피니스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유아의 신체 발달 단계에 맞춰 구성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체조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 △균형감각과 협응력 향상을 위한 밸런스 운동 △리듬감 발달을 돕는 율동 등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K-POP 음악과 리듬 댄스를 접목하여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놀이처럼 즐기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음악을 통한 표현력 향상, 자신감 및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관계자는 “영·유아기의 신체활동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성장과 두뇌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영·유아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아이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5 수어문화제 개최 다양한 수어 체험 기회 제공

남원시는 지난 25일 예촌 마당에서 농아인, 가족, 시민과 함께하는 “제5회 남원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다.

수어문화제는 농인과 건청인이 어우러져 함께 즐기며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어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인과 건청인 5개 팀이 수어 경연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수어로 경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수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남원시는 한 주간의 시청소식을 수어와 사진, 자막 등으로 구성된 수어 홍보 동영상 서비스를 제작해 매주 목요일 시 홈페이지와 남원시 TV, SNS를 통해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시청정보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어문화제를 통해 ‘수어로 마음을 나누다’를 주제로 농인과 건청인이 함께 소통하는 한편, 시민의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더불어 사는 남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초동 대응 체계 강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완주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한다. 또한 산불진화차량 13대와 주요 진화장비를 가동해 산불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림 인접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및 계도활동 등을 병행해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불법 소각을 절대 삼가 주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청소년 디지털 인재 해외탐방 본격 발대

‘디지털리더스클럽’ 싱가포르 탐방 SW·AI 교육수로 우수학생 선발

남원시는 지난 24일 ‘디지털리더스클럽 해외탐방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리더스클럽’은 SW개발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W/IT분야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는 남원시 지역특화프로그램이다. 이번 발대식은 글로벌 IT 현장을 직접 체험할 학생들의 첫 공식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탐방의 취지와 일정을 공유하며 해외탐방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번 해외탐방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6월 모집공고 이후 8월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부트캠프와 SW미래채움 전북센터에서 진행된 심화교육을 거쳐 선발된 우수 수료생 12명이다. 학생들은 부트캠프와 심화교육을 통해 파이썬, 게임 개발, 아두이노 기반 IoT 등 실무 중심의 SW·AI 기술을 학습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왔다.

행사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탐방 일정, 안전수칙, 유의사항 등을 안내



남원시는 SW/IT 우수인재 초·중등생 12명을 선발하고 지난 24일 ‘디지털리더스클럽 해외탐방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남원시>

했으며, 학생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 제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시장과의 대담 시간에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해외탐방은 학생들이 글로벌

디지털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싱가포르 국토개발청 산하 도시개발청(URA) 방문, NUS·ITE·SUSS 등 국립대학 IT 관련 학과 견학, AI·로봇공학·VR·AR·드론 등 첨단 에듀테크 현장 체험, 그리고 현지 기업의 자동화 생산공정 탐방 등이 포함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의료·돌봄 통합모델 구축 속도낸다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앞두고 민간 협력 간담회…선제적 대응

완주군이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모델 구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완주군 보건소에서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원용 고산성모의원장,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 김정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양지플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완주군 보건소, 사회복지과, 건축과, 경로장애인과 등 지역 의료·복지·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완주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는 ‘기술



완주군은 최근 지역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완주군>

지원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지정돼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경험 공유와 본사업 전환에 대비한 서비스 연계 및 제도 보완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또한 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간 협력 체계 강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민·관 연계 방안,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뜻

을 모았다.

김미숙 완주군 경로장애인과장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의료와 복지, 요양서비스 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비한 서비스 연계 및 제도 보완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내장상동, '행복나눔 텃밭' 고구마 550kg 수확

정읍시 내장상동(동장 박은주)이 지난 22일 '행복나눔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 550kg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내장상동 통장협의회(회장 최경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회원·주민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통장협의회 특화사업 중 하나로, 이날 쌍압동 일원 150평 밭에서 총 550kg(110박스)의 고구마를 수확했다. 수확한 고구마는 관내 37개소 경로당·공유냉장고를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됐다.

최경렬 회장은 "이번 나눔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 월남참전기념비·위령비·무공수훈자전공비 제막식 개최

남원시는 27일 오전 10시, 교통산 국민관광단지 내에서 '월남참전기념비, 위령비,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월남참전유공자회(회장 박준회), 고엽제전우회(회장 성경용), 무공수훈자회(회장 권영갑)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시장과 시의회 의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기관장,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기념비 제막, 대화사, 조종발사, 추모제사, 헌화 및 분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된 위령비와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는 2023년 교통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수 및 이전 설치를 마쳤으며, 월남참전기념비는 2024년 명각보안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모습으로 시민 곁에 다시 세워졌다.

이번 제막식 행사는 참전용사와 무공수훈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시민과 후손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특전사동지회, 26년째 이어온 연탄 나눔 활동

취약계층에 연탄 3천장 지원 "올 겨울 함께 따뜻하게"

사단법인 군산특전사동지회(회장 오성권)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군산특전사동지회 회원들은 직접 모금한 성금으로 군산시 삼학동, 명산동, 미원동 등 1가구당 300장씩, 총 10가구에 3천장(24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군산특전사동지회의 연탄 나눔은 1999년부터 매년 꾸준히 이어

져 온 지역대표 나눔 봉사활동으로, 올해로 26년째를 맞았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구성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진짜 나눔'을 실천해와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온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

오성권 회장은 "특전사 선배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연탄으로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우리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산림조합, 나무심기 성금 2,000만원 기탁

푸른익산 가꾸기 동참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이 녹색정원도시 익산 만들기 동참하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익산산림조합이 (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기탁한 2,000만 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나무 식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산림조합은 2021년부터 불우이웃 돕기, 나눔공간 기부,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

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성 익산산림조합장은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삶이 책이 되다' 완주 동상면 어르신 자서전 펴내

완주군 동상생활문화센터(센터장 유경태)가 지역 어르신들의 자서전 '인생노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동상면 신월리 원신마을 김춘이, 사봉리 북계마을 배성환 어르신의 자서전 발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가족과 지역 주민 등 약 30명이 참석해 두분의 출판을 축하했다.

'인생노트'는 동상생활문화센터가 추진하는 자서전 발간 프로젝트

트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해 개인의 생애를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남기는 사업이다. 두 어르신의 이야기는 동상면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아냈다.

센터는 이번 발간을 통해 △자존감 회복 △정서·정신적 복지 증진 △세대 간 공감·소통 확대 △지역 문화기록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마이산탐사감룡장학회, 장학금 900만원 기탁

진안군 자원봉사자 가족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해졌다.

마이산탐사감룡장학회는 27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제12회 마이산탐사감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자원봉사자 자녀 및 손자녀 28명에게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진안군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감

룡장학회는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30년 동안 이어져 온 감룡장학회의 장학사업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장학생들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읍시지부, 장학금 300만원 기탁

정읍 지역 낙농인들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읍시지부(회장 이민환)는 27일 (제)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을 찾아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민환 회장은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낙농인이 함께하는 상생의 지역문화를 이어가며, 정읍의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의 든든한 일꾼인 낙농인들의 정성·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주신 뜻을 소중히 이어받아 지역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호림건설 최진호 이사, 부안군에 15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3일, 지역 건설업에 종사하며 부안군 인연을 이어온 호림건설 최진호 이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1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그동안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이번 기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한 기업인의 책임 있는 나눔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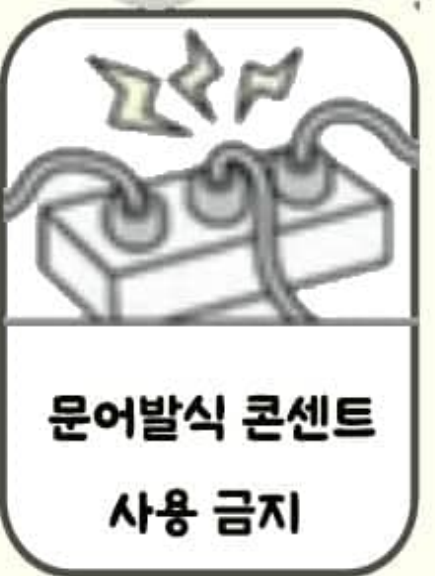
특히 부안군의 청년 주거 지원 및 어르신 복지사업에 공감하며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호 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부자의 따뜻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실내 화재예방



〈一事一言〉



이재명 외교의 거대한 시험장 10월 아펙 정상회의(1)

오태규
언론인

10월은 이재명 정권에게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관통할 대외정책의 큰 방향과 구도가 이 시기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APEC) 정상회의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합니다.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하는 미·중 두 나라 정상이, 트럼프 2기 정권 이후 처음 대면하는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이때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예약한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도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주최국의 이점을 살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숙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좋은 외교 정책을 세워드 대외관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호응하거나 호응하도록 설득하지 못하면 '백악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10월 경주 아펙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펼쳐지는 외교 무대가 이재명 정권으로선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익 중심'이란

용어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실용 외교란 남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생각하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진영과 이념을 앞세운 맹목 외교를 하는 바람에 국익을 해쳤다는 반성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 래서인지 나라 안팎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위한 실용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남 습니다. 저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평화 없이 한반도 평화가 없고, 세계의 번영 없이 한국의 번영도 없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사성어를 빌려 표현하면,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난관이 널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난관은 일본입니다. 일본 안팎의 예상은 깨고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더욱 극우적인 다카이치가, 4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각료 시절에도 매년 에이(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배외주의자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도중에 참배를 그만두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폭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한 극우 전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자유주의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100여 일 동안 3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쌓아온 대일 실용 외교의 토대가 다카이치의 출현으로 여차하면 일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기 전과 총리가 된 뒤는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압박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기에 총재 당선 전처럼 마구 달리지 않는겠지만 이 대통령이 최악의 일본 상대를 만난 건 분명합니다.

일본보다 더한 위협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한화, 492조 8700억 원)를 자기 주머니에 든 돈으로 간주한 채, 관세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자켓대로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나라가 거덜 날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해온 한미동맹 중시, 미국 추수 일변도 외교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어떤 재앙이 초래됐을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합의를 안 하고,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안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 아니면 안 한다는 '3불 정책'을 천명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얼룩말의 싸움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룩말 무리

전체가 힘을 합쳐 힘찬 발걸음을 해야 겨우 사자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침,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을 해주려 간 한국 파견 노동자 300여 명을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어 질질 끌고 가는 미국의 야만 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시골 촌로들마저 "미국이 우리나라를 마소 취급한다"라고 분개하는 지경입니다.

저는 이런 시민의 각성을, '생활 반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광주 학살에 군 동원 용인, 호순·미선 양 압사 사건, 윤금이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터진 반미 움직임이 좁은 범위에서 강렬하게 분출한 일과성 '정치 반미'였다면, 조지아 사태로 인한 반미는 넓은 범위에서 은근하게 지속되는 '생활 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짝 타오르다 금세 꺼지는 불꽃보다 은근하게 오래 타는 숯불이 무서운 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 반미에서 생활 반미로 변하는 한국의 민심을 활용해 트럼프 발 폭풍을 헤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숙의의 결실’ 16건, 전북도는 실행으로 응답하라

전북도가 '먹거리 숙의기구'로부터 도민이 직접 제안한 16건의 정책을 전달 받았다. 이는 행정이 일반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도민이 스스로 지역 먹거리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거버넌스의 모범이다. 특히 지난 4개월간 다양한 계층의 도민 70여 명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만들었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숙의기구의 정책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를 동시에 고민한 실질적 대안들이다. '전북산 원물 기반 밀키트 개발',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확대 활용', '꽃난이 농산물 판매처 확충' 등은 모두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다. 도민이 직접 겪는 불편과 지역 농가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제안이어서 그 실행 가능성은 행정이 만든 타당공문보다 훨씬 높다.

이제 공은 전북도에 넘어왔다. 도는 숙의기구에서 전달받은 제안들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각 부서별 실질적 검토와 더불어 먹거리위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도민 참여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안된 정책이 행정의 서류 더미 속에 묻히는 순간, 도민들의 숙의와 참여는 헛수고가 된다.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보다 '반영'에 있다. 행정이 이들 정책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전북형 거버넌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이번 숙의기구는 전북 먹거리 기본조례 제17조에 근거해 출범한 공식

기구다. 즉,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화된 참여 구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도민 제안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꾸준히 운영된다면, 이는 단순히 먹거리 분야에 그치지 않고 농정, 환경, 복지 등 다른 정책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도민이 정책의 주체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비율은 낮고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정책도 현장의 체감도가 부족하다. 이제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이 간극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 행정은 이를 단순한 '참여 성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의 손으로 만든 16건의 정책 제안은 전북 먹거리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 중심 행정'의 시험대다. 전북도는 숙의기구의 결과를 보고 서로 접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책 반영 여부와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숙의기구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일깨운다.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민의 삶의 경험과 요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북도가 이번 제안을 통해 행정과 도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모델을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전북형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값진 성과가 될 것이다.

문화재열전



적상산성 호국사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괴목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10월 / 오 세 영

무언가 잃어 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돌아보면 문득
나 홀로 남아 있다.
그리움에 북마르던 봄날 저녁
분분히 지던 꽃잎은 얼마나 슬펐던가.

육정으로 타오르던 여름 한낮
화상 입은 잎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이 지상에는
외로운 목숨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낙과(落果)여,
네 마지막의 투신을 슬퍼하지 말라.

마지막의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빛과 향이 어울린 또 한번의 만남인 것을,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잃어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시인 약력 : 1942년 전남 영광 출생. 1965년 '현대문학'에 새백이, 1968년 '잠깨는 추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반란하는 빛',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 '무명 연시', '꽃들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 등이 있다.

한국시인협회상, 녹원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만해대상 [1]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전북타임스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지하 80m '역발상 콜로세움'

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난 10월 25일 성황리에 개막한 익산 황등석산 제1전망대 'EARTH UNDER PARK IKSAN'이 개장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익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개막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예술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근대 산업유산의 문화예술공원 재탄생을 축하했다. 80여 년간 화강암을 채굴하며 형성된 지하 80m 깊이의 원형 채석장은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빚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 그 자체다.

〈편집자주〉

압도적 비경, 80m 수직 절벽의 장관

제1전망대에 서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80m 직벽과 원형 채석장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하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 독특한 풍경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관이다.

수십 년간 돌을 깎아내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절석면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황갈색, 은회색, 붉은빛으로 변화하며 살아있는 캔버스처럼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미디어 전망 카페 전망대 내부에는 미디어 전망 카페가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80m 절벽의 장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카페에서는 익산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도 선보여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웅장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익산의 맛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은 방문객들에게 오래 기억될 추억이 될 것이다. 문화·상생·조망, 세 가지 가치로 미래를 설계하다

제1전망대는 '문화', '상생', '조망'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 번째 가치인 '문화'는 미디어 전망 카페와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년 예술가 전시를 통해 구현된다.

개장 시기에 맞춰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전시가 열리는 것은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공연, 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기획되어 황등석산이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두 번째 가치인 '상생'은 전망대에서 시작되는 황등 돌레길을 통해 실현된다. 이 돌레길은 황등전통시장과 황등면 중심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관광객들이 지역 상권을 찾도록 유도한다.

전망대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등면 곳곳의 숨은 명소와 맛집을 발견하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다. 관광이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 모델을 지향한다.

세 번째 가치인 '조망'은 황등석산만의 독특한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80m 수직 절벽이 선사하는 압도적 스케일과 계절별로 변화하는 절석면의 색깔, 그리고 야간 라이팅 쇼까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풍경을 제공한다. 일출부터 일몰, 그리고 밤까지 하루 종일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황등석산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산업유산 재생의 새로운 모델

황등석산 프로젝트는 전국의 유사한 근대산업시설에 적용 가능한 성공적인 재생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역 경제와 문화, 교육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은 대한민국 산업유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산업의 거친 흔적을 예술과 미래로 승화시키는 황등석산 문화예술공원. 제1전망대 'EARTH UNDER PARK IKSAN'의 개장과 함께, 익산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도시로 한층 더 비상한다. 지하 80m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익산의 미래를 밝게 비출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기자



황등석산 제1전망대, 문화 · 상생 · 조망으로 미래 열다



<사진=황등산업아트엔컬처 제공>

〈김찬혁 대표 인터뷰〉

“세계적 문화예술공원으로
익산을 국제 도시로”



개막식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황등아트엔컬처 김찬혁 대표는 성공적인 개장에 대한 감회와 함께 황등석산의 미래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Q. 제1전망대 개장을 맞이한 소회는?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80여 년간 산업의 현장이었던 이곳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개막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황등석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셨다는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Q. 황등석산이 가진 차별화된 가치는 무엇인가?

“황등석산은 80년 세월이 새긴 역사와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한 예술 작품입니다. 지하 80m 깊이의 원형 채석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경관입니다. 마치 콜로세움을 지하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 독특한 구조는 그 자체로 예술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Q.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1단계 제1전망대 개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2전망대, 소규모 공연, 돌레길 공원, 예술가 레지던시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 포천 아트밸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여 익산을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황등석산을 연간 50만 명 이상이 찾는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지역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망대에서 시작되는 돌레길이 황등전통시장과 황등면 중심가로 연결되도록 설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황등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주민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광이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청년 예술가 지원 계획은?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개막식에서 선보인 학생 전시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황등석산이 청년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 레지던시가 완성되면 국내외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방문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황등석산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한 번만 방문하지 마시고, 봄·여름·가을·겨울 각기 다른 모습을 경험해보시길 권합니다. 일출부터 일몰, 그리고 야간 라이팅 쇼까지 시간대별로 전혀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황등석산에서 익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